

# 코로나19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창립45주년 기념예배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이하 한기지협은 창립 45주년 기념예배를 지난 7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코리어나호텔에서 드리고 '나부터 정직하자', '나부터 회개하자', '나부터 절제하자'라는 3대 실천목표가 담긴 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기지협을 선두에 서서 이끌어온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교회 역시 한때 예배가 중단되는 등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계속해서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교회를 보며 아픔을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공동회장 최병두 목사의 사회로 유홍목 목사(합동침신 증경총회장)기도, 김동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권 목사는 '지도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도자가 자기 성질이 부족하고 영적인 책임감이 결여될 때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 니엘처럼 위기에 놓일수록 지도자가 방향을 잘 잡고 슬기롭게 헤쳐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기도시간에는 김정부 목사가 '현의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배태선 목사(세계목회지전교회 대표회장)가 '코로나 재앙이 속히 소멸되기 위해', 김해철 목사(투더대전 총장)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국가 안전을 위해', 정일채 장로(한기지협 이사)가 '북한 정권의 붕괴와 평화통일을 위해'라는 주제로 기도를



이날 감사예배는 공동회장 최병두 목사의 사회로 유홍목 목사(합동침신 증경총회장)기도, 김동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정호 목사(기감 전 감독회장)와 이 정준 목사(한국교회국가안전선언원 총재)는 각각 격려사와 축사로 한기지협의 창립45주년을 축하했다.

# 제12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예배

### (사)한국장로교총연, 6.25 한국전쟁 70주년도 기념해 개최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제12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예배를 회원교단 총회장, 임원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락교회에서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였다.

금년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형집회 가 아닌 회원교단 임원들 250여 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쓰고, 함급 순서도 개인이 헌금함에 넣는 방식으로 하며 참석자 전원 등 록을 받아 참석하였다.

대표회장 김수을 목사는 대회사에서 한국사회와 교회는 코로나19, 경제 불황, 인구 문제, 안보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힘든 가운데 교회가 내일에 대한 희망의 빛을 전하여야 하기에 이번 행사의 주제를 '빛이 있으라(창 1:3)'로 정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회원교단 임원 위주로 참석자를 초대하였다고 하였다.



총회장은 설교에서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의 빛으로 시작이 되었고, 천국의 빛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며 "우리가 세로이 얻은 신분이 빛이고, 새로운 삶이 빛이기에 한국교회가 빛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반성할 일이 이런 은혜의 인식과 은혜의 삶의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을 점검하고 다시 빛의 역사를 이루자"고 권면하였다.

이날 비전선언식에서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가 비전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육순종 목사(기장 총회장)가 "2020 우리의 회개와 다짐"을 낭독하고 회중과 함께 7개의 실천 강령을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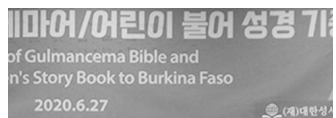
# 성서공회, 부르키나파소 성경기증식

### 성경을 보내는 것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남양주총신교회 후원으로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김영태 권사, 왕보람 대표의 후원과 남양주총신교회(안성덕 목사)의 후원으로 부르키나파소에 <굴만세마어 성경>과 <어린이 불어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지난 6월 27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졌다.

이번 기증식에서 김영태 권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경을 보내는 것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남양주총신교회 안성덕 목사는 "말씀 공동체(8:1-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퍼뜨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겠다는 목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김영태 권사, 왕보람 대표의 후원과 남양주총신교회(안성덕 목사)의 후원으로 부르키나파소에 <굴만세마어 성경>과 <어린이 불어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지난 6월 27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졌다.



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통해 세워졌던 것처럼, 전 세계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하였다.

성서공회 총무 호재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보내지는 성경을 통해서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이 기쁨과 이슬의 땀방울, 심각한 문맹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영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서쪽 내륙에 위치해 있는 작은 나라로 공용어는 프랑스어이지만 대다수는 아프리카 방언을 사용한다. 84개에 이르는 방언으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으며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의 문맹률은 58.8%에 이른다(2018년 기준). 높은 문맹률로 경제 발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어렵다.

# 한국성결교회연합, 제11회 정기총회

### 신임 대표회장에 한기재 목사 취임

국내 3개 성결 교단(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사탄성결교회)의 연합 모임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이하 한성연)는 지난 7월 1일(수) 서울 동대문 중앙성결교회(담임 한기재 목사)에서 제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한기재 목사(기성 총회장)를 추대했다.

이날 총회는 기성·예성·나성 3개 교단에서 총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대표회장 문정민 목사(나성)가 의장으로 나서 개회를 선언했다. 동 연합회의 대표는 회칙에 따라 3개 교단이 순번제로 맡으며, 올해는 기성의 차례다.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한기재 목사는 "연

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결의 복음이 땅에 전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이제는 질적으로 건강한 부흥을 필요로 한 시점이다. 우리 성결교단이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특히 성결교 정체성을 담은 목회자윤리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3개 교단 대표가 모여 한국교회 앞에 선연직의 의미를 담은 목회자윤리규정을 공포하는 일의 의미를 내뻐"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문제들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학적으로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한국기독교, C&M 얼라이언스 한국총회 등의 한성연 참여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C&M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는 기성의 협력교단이다.



# 한국장로회총연, 제40회기 1차 실행위

### '6.25 전쟁 발발 70주년의 반추' 특강시간도 가져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중현 장로)이하 한장총연)가 주최하는 '제1차 실행위원회 및 세미나'가 대표회장 소속교단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 주관으로 6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개최됐다.

오전 9시(예성, 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부 예배에서는 김운성 목사(예성 총회장)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고전 15:50-58)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전우수(고신, 공동회장), 진성화(기성, 공동회장) 장로가 국기인사와 코로나19, 한장



총연 소속 17개 교단 장로회 부흥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를 했으며, 복음가수인 안효현 장로(예성, 부평남부교회)의 함급찬양과 이강준 목사(예성 교단총무)의 축사가 있었다.

예배를 마친 후 진행된 2부 안보세미나에서는 예비회 육군대장인 권오성 장로가 강사로 초빙되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의 반추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맡았다.

# 가수 미교, '선한이웃' 화보 재능기부

### 장기기증 서약 및 홍보대사로 위촉 ... 유가족 위한 홍보활동 펼쳐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는 가수 미교가 동 운동본부의 홍보 소식지인 '선한이웃' 표지 화보 촬영에 재능나눔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선한이웃'은 본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로 장기기증인과 이식인의 미담 소식 및 장기기증 관련된 정보를 담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및 유가족,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특히 이번 7, 8월호의 표지 화보 촬영은 미교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윤종신 '좋니' 답가송으로 유튜브 1천만 뷰로 화제가 되어 이름을 알린 미교는 선한이웃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장기기증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우연히



최근에 뉴스를 통해 실제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의 사례를 접했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구하고 떠나는 기증자들의 용기와 사랑이 대단하고 멋져 보였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수 미교는 최근 장기기증 서약에도 참여하고 장기기증 운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감에 대해 "장기기증 운동 본부 사무실을 찾아 직접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가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내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 세계선교협의회 제148차 월례회 개최

### 세선협 회장 양승수 목사

세계선교협의회(회장 양승수 목사, 이하 세선협) 제148차 월례회가 지난 6월 25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5-1 소재 산장카페에서 열려 1부 예배, 2부 회의 순으로 진행되고 기도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김경수 목사(로고스교회)의 인도로 전순임 목사(연합교회)의 대표기도, 오광근 목사(새빛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시 121:7-8 말씀을 본문으로 '도움과 보호의 약속'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

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 가면 주님은 영원까지 도우시고, 지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송만자 목사(참사랑교회)의 봉헌기도, 김천자 목사(원림중앙교회)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5나라의 평안과 세계선교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회원들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장 양승수 목사의 영성묵상기도의 축도로 1부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양승수 목사의 사회로 감사회와 임명장 증정 후에 서기 최미영 목사의 회원점명,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의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송만자 목

사, 임명회계보고는 전중호 전도사, 임명실장 김경수 목사, 총무보고 전순임 목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각각 보고했다.

안간토의에서는 △유치원, 초, 중, 고 교장 영입의 건, △마스크, 수도, 선풍기 구입의 건, △단기 선교의 건, △국내에서 단합대회의 건, △차기 월례회 장소의 건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를 마치고 카페에서 전중호 전도사가 식사를 제공하여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세선협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양승수 목사, ▲부회장 전인숙 목사, ▲서기 최미영 목사, ▲회계 송만자 목사,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 ▲임명실장 김경수 목사, ▲임명 회계 전중호 전도사, ▲총무 전순임 목사, ▲감사 김유현 목사, 김재선 목사, ▲회교장 한규설 목사, ▲유치원장 김천자 목사.

# (주)스마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방역 도우미

### 장의자, 성경거치대 등에도 뒀다 붙일 수 있는 항균 필름 개발

코로나19로 한국교회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탈부착이 용이하면서도 확실한 항균력을 자랑하는 '항균 필름'이 개발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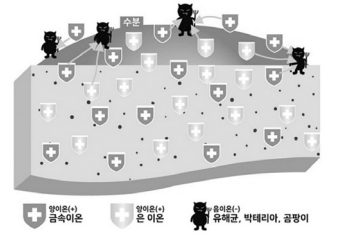
광학용, 미디어용 기능성 필름 전문회사로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스마트(사장 김정호 집사·서광교회)가 기능성 항균 필름 'Shield24' (www.ismart.sheet.com)를 선보였다.

'Shield24'는 인체에 안전한 무기물인 은·구리·이온 등의 금속을 나노미터(nm)급으로 분해해, 고효능 폴리머드실버 수용액에 함유한 뒤, 특수처리 과정을 거쳐 합성수지의 재료와 혼합시킨 제품으로, 항균력과

출력(노팅) 안정성 어느 하나 뒤떨어지지 않는다.

일상에서 다중시설 이용 시 접촉 표면에서, 기생하는 각종 세균류와 곰팡이류의 단백질로 구성된 외피에 항균 필름의 '누금' 속이온 성분과 세균과 결합해 바이러스의 외피를 녹이고 파괴하면서 증식을 방지 및 2차 감염을 예방, 차단하는 방식이다.

'Shield24'가 여는 항균 필름에 비해서 이목을 끄는 데에는 'Shield24'만의 기능과 장점 때문이다. 'Shield24'는 반영구적 항균 필름으로 항균, 항곰팡이, 유해 세균의 예방과 확산 방지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인체에 무해한 무기계 나노급 금속이온 천연항균제



를 이용했다. 또한 기포 걱정 없이 누구나 직접 부착이 가능한 AIR FREE 항균 필름을 사용했고, 세계 최초로 원단에 고해상도 실사 출력과 코팅 기능을 더해, PLAIN(스티커)와 DOT(점) 2가지 점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